

나른한 봄, 오감 깨워 줄 특별한 공연 만나봄

광주시립극단, '레옹세와 레나' 공연... 22~24일 문예회관 소극장

광주시향, 27일 GSO 오티움 콘서트Ⅱ '로맨틱 프라하'... 조인혁 협연

광주시립예술단체가 연극과 클래식 음악으로 관객과 만난다.

먼저 광주시립극단이 오는 22~23일 오후 7시30분, 24일 오후 3시·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레옹세와 레나'를 선보인다.

'레옹세와 레나'는 24세의 나이로 요절한 독일 극작가 게오르크 뷔히너(1813-1837)가 남긴 3편의 희곡 중 유일한 희극이다. 뷔히너는 현대 연극의 선구자로 불리는 극작가로, 그의 희곡들은 오늘날까지도 무대에 올려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기승전결을 벗어난 열린형식과 냉철한 사실주의, 부조리와 소외 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무대에 올릴 '레옹세와 레나'는 권태로운 삶에 지친 왕자 레옹세가 정략결혼을 피해 달아나며 벌어지는 엉뚱하고 유쾌한 소동을 다룬 희극으로 총 3막으로 구성됐다. 풍부한 문학적 인용과 암시가 기교적으로 어우러졌으며, 유쾌함의 이면에는 꼭두각시로 전락한 궁정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랄한 정치적 풍자가 숨겨져 있다.

원광연 광주연극협회가 각색·연출을 맡았으며,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17명의 배우들이 출연한다. 전석 1만원. 문의 062-511-2759.

광주시립교향악단은 GSO 오티움 콘서트Ⅱ '로맨틱 프라하'를 준비했다. 27일 오전 11시,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SO 오티움 콘서트는 국제무대에서 새롭게 떠오르

는 젊은 클래식 아티스트들과 함께 음악작품의 스토리를 흥미롭게 풀어내 기대를 모으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선보일 '로맨틱 프라하'는 클럽 발코니 편집장이자 음악칼럼니스트 이지영 해설과 메트로폴리탄 극장 동양인 최초 관악기 수석 클라리넷리스트 조인혁이 함께한다.

이날 들려줄 첫 곡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 622'다. 모차르트가 죽기 전 작곡한 마지막 협주곡으로, 친구이자 당대 최고의 클라리넷 연주자 안톤 슈타틀러를 위해 작곡한 작품이다. 클라리넷의

매력을 가장 잘 표현한 협주곡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어 드보르작 '교향곡 제8번'을 연주한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중 가장 국민주의적 성격이 짙은 작품으로 그의 고향 체코의 목가적인 풍경과 민족의 정서를 담고 있다.

조인혁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스위스 빈터투어 뮤직클레기움 오케스트라와 바젤 심포니의 클라리넷 종신 수석 단원으로 활동했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공부한 그는 드뷔시 국제 콩쿠르 특별상을 시작으로 앙리 토마지 국제 목관오중주 콩쿠르 1위를 차지했으며, 칼 닐센 국제 콩쿠르에서 관악 연주자로서는 한국인 최초로 입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석 1만원(학생50%). 문의 062-415-5086.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오성현 '쉽터'

청년작가 5인이 그려내는 '관계'

16일~5월16일 화순 소아르갤러리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19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화순에 위치한 소아르갤러리(SOAR·관장 조의현)가 젊은 작가들을 초청, 2021년 기획전을 개최한다.

'관계의 초상'을 주제로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 작가 5인이 그려내는 '관계'에 대한 사유의 기록이다.

전시에 초청된 나지수, 오성현, 오유진, 이수진, 임형준 등 5명의 작가는 회화와 사진, 설치, 영상 등 다양한 장르로 자신이 생

각하는 관계맺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끊임없이 마주하며 소통해야 하는 줄만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그들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관계의 초상'전은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며 떠오른 관계에 대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시작되어, 이 시대 청년작가들이 이야기하는 관계의 다양한 모습들을 시각화해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전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클라리넷 조인혁



광주시립극단 정기공연 '레옹세와 레나'가 오는 22~24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양산도서관, 독서동아리 모집

북구 양산도서관(광주시 북구 하서로 299)은 2021년 독서동아리를 오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독서동아리는 모두 6개 내외(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 등 대상별 1개 이상)를 모집하며, 관내 주민 8~10인 이상의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다. 특정 기관 단체의 이익활동, 특정 정당, 종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강사가 회원에 일정한 강사료를 받는 수업 형태의 동아리는 제외한다. 또한 단순 사교나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참여할 수 없다.

동아리는 월 1회 이상 정기 모임을 실시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타력 운영이 가능하다. 접수방법은 북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Lje1207@korea.kr)로 보내면 된다.

결과는 오는 5월 26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062-410-824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예위 '공연예술 인력지원' 5개월간 3500명에 월 180만원

19일~5월3일 신청 접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예술분야 3500명에 5개월간 월 180만원 인건비, 총366억 원을 지원한다.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공연예술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2021년도 1차 추경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모 신청대상은 2021년도 하반기 공연예술 활동을 계획하고, 공연예술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이면 된다. 오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공연 장르별 주관처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연극협회, 한국뮤지컬협회, 한국음악협회, 한국무용협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 5개 공연 장르별 주관처에서 공모가 동시에 진행되며,

장르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인건비 지원기간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총 5개월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공연예술 활동을 위한 예술인력을 선발하고 운영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연예술인에 대해 표준 근로시간과 4대 보험 제공 등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보장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술인들에 대해 적합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예술위는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공연예술계 고용 안정망 구축을 위해 예술 현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인건비 집행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문의 02-760-4660(636,66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학교가는 길' 20일 장애인의 날 특별한 시사회

광주극장, 5월5일 개봉예정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세상의 편견과 맞서는 엄마들의 빛나는 행복' 광주극장이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별한 시사회를 개최한다.

광주극장은 오는 5월5일 개봉 예정인 영화 '학교가는 길' (감독 김정인·사진)을 20일 오후 7시20분 스크린에 올린다. 이 작품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싶은 부모의 간절함으로 무릎까지 꿇으며 17년째

전무했던 서울 시내 특수학교 설립을 이끌어 낸 강서 장애인부모회 학부모들의 열정적인 순간들을 기록했다.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작, 제25회 인천인권영화제 폐막작, 제46회 서울독립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언급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아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광주극장 후원회원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성인은 8000원, 청소년은 7000원이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S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